

‘BUY-광주·전남 운동’

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애용합니다

트레일러형 이동식 명품 화장실 개발 ‘명성’

(주)한국그린피아



이 회사는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 등 특허등록 6건과 원목화장실에 대한 실용신안, 이동식 화장실 등 디자인등록 7건 등 총 20여 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ISO 9001 인증도 획득했다.

또 설립 당시 8000여만원에 불과하던 매출도 지난해 35억원, 올해 40억~5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담양에 생산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담양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내 9000㎡ 부지에 52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트레일러 및 이동식 화장실 제조 공장을 건립, 내년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한국그린피아(대표이사 김정설)는 자동차 전문 제조회사로 트레일러 기술을 이용한 이동식 화장실을 개발,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창조해가는 벤처기업이다. 지난 2006년 담양에서 설립해 2007년 광주 평동 외국인산단으로 이전했다.

트레일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독일 알코사와 동아시아 독점기술 협약을 체결, 기술혁신을 이룬 최첨단 안전시스템 자동차 트레일러 제작기업으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관성 제동장치를 장착한 세미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곳으로는 국내 유일하다.

한국그린피아는 독보적인 트레일러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식 화장실 사업에 진출했다. 트레일러 기술과 친환경·쾌적·안전·첨단성을 접목한 블루오션형 모델을 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그린피아의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할 곳의 지형과 문화 등을 고려해 설계돼 납품된다. 전국대전·합평 나비공중엑스포·담양 대나무축제 등 전국 규모의 행사·축제에 120여차례 제곱매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제 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 자동차·로봇전, 국제 상하수도 전시회를 비롯해 지난 25~28일 광주서 열린 국제 그린카전시회에 참가,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을 탑재한 이동차량 일체형 화장실 및 트레일러’ 등을 선보였다.

스마트폰 이용 IT융합 솔루션 개발·보급

(주)도울정보기술



도울정보기술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IT 융합 솔루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스마트 전자계시판은 최근 열린 ‘2010 호남 IT전시회’에 참가해 행사·호주·미국 등 해외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 전자계시판은 ‘LG U+’의 부가서비스 기능에 탑재돼 다음달 중순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원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회사 직원은 10명이다. 이 중 7명은 부설연구소 연구원이다. 이들이 거둔 지난해 매출은 10억5000만원이다. 1명 당 1억원 이상 벌어들인 셈이다. 홈페이지 www.doul.co.kr, 062-513-957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도울정보기술(대표이사 천승환)은 정보기술(IT)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혁신형(이노비즈) 벤처기업이다.

지난 1996년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에서 창업해 2년 만인 1998년 당시 기업들이 등한시하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개발(R&D)을 선도했다.

도울정보기술은 이 연구소 덕분에 ‘지식기반 원격 진맥시스템’,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프로그램인 ‘재산지기21’, RFID(전자태그) 기반 ‘디지털 잠금장치를 위한 네트워크 모듈’과 ‘출입통제 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전기기 원격제어 시스템과 첨단 체력측정 프로그램 등 IT 융합 솔루션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요 개발제품은 가로등 양방향 중앙관제 시스템과 멀티스크린(스마트) 전자계시판 시스템, 무인자동증명서 발급기 등이다.

가로등 양방향 관제시스템은 유지·보수 비용과 전기료 절감효과가 탁월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기가 높다.

지난 2004년 순천시에 첫 공급한 이 시스템은 유·무선 통신 장비(CDMA)를 이용해 중앙제어센터에서 각 가로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광주시와 무안국제공항, 광주 서구, 경남농업기술원, 경남 사천시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열집 중 두집 월 300만원 넘게 쓴다”

3분기 소비지출 분석, 200만원 이하는 52%로 하락

경기 회복으로 소득이 늘고 물가도 상승하면서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을 소비지출에 쓴 가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반면 소비지출이 월 200만원을 밑도는 집의 비중은 전체의 50% 수준까지 줄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농어가 제외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명목 기준)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소비지출에 쓴 가구의 비중은 20.05%였다.

소비지출은 생계와 생활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 구입에 들인 비용을 말한다.

3분기 기준 월평균 소비지출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003년 9.31%에서 2004~2007년 10.77%, 12.13%, 12.64%, 15.20% 등에 이어 2008년 17.10%로 뛰어 올랐다. 작년에는 경제위기로 17.62%에 그쳤지만 올해는 20%를 돌파, 7년만에 갑절로 불었다.

소비지출액 5개 구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200만~300만원 구간은 지난해 3분기 25.22%에서 올해 3분기에는 27.73%까지 늘었다. 2003년(18.65%) 대비 비중 상승폭은 9%포인트가량이었다.

반면 월 소비지출액이 200만원을 밑도는 가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 100만~200만원은 작년 3분기 40.02%에서 올해 3분기에는 37.85%로 40%선이 무너졌고 100만원 미만은 같은 시기 17.14%에서 14.38%로 줄었다. 7년 전에 비해서 각각 10%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00만원 미만은 2003년 72.04%에서 이번에는 52.23%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경기 회복으로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이 6.1% 늘어난데 따른 것이지만, 9월에 추석이 끼면서 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신선식품을 비롯한 물가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금값 급등에 돌반지 대체상품 인기

상품권·유아복세트 등

금값이 한 돈(3.75g)당 20만원을 훌쩍 넘긴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면서 금제품을 대체하는 상품들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2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돌 선물용 상품권을 담은 고급 병투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전통적인 돌 선물인 금반지를 대신해 주로 10만원권 상품권을 선물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이 제작년부터 상품권 판매 데스크에서 무료로 주는 이 고급 병투는 처음에는 한 달에 300여 장 나갔지만, 지금은 10배 수준인 매일 3000장 이상씩 나가고 있다.

유아복 시장도 금값 상승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에서 영업 중인 유아복 브랜드의 매출이 최근 3개월(9~11월) 동안 15% 이상 신장했다.

특히 이들 브랜드는 돌 선물용으로 10만원 내의 가격의 상·하복 세트를 찾는 고객이 예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액세서리 시장도 금값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에서 올 8~11월 은이나 크리스탈을 사용한 커스텀주얼리 매출은 15% 이상 증가했다. /연합뉴스

정기예금 금리 5년만에 최저

은행들의 잔액 기준 수신 금리가 5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종 정기예금 금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수신 금리는 연 2.94%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05년 9월의 연 2.92% 이후 최저치이다.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는 0.06%포인트 하락한 연 3.63%, 정기예금 금리는 0.07%포인트 떨어진 연 3.61%로, 이들 금리는 한은이 2001년 9월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총대출 금리는 연 5.70%로 전달과 같았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국내증시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투자심리가 불안해지면서 지수 변동이 확대됐다. 특히 북한 도발에 따른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됐던 이전과는 달리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시장의 경계감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소식이 취약했던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면서 2차 충격으로 이어진데다 이번 사태가 해결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대결 구도가 지속되면서 뒤따른 후유증으로 보인다.

26일 장이 마감한 이후 나온 북한의 훈련 소식에 투자심리가 취약해진 것으로 봐서, 당분간 투자심리 불안에 따른 지수 변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후반 지수 하락이 그만큼 과민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

반응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며, 지정학적 위험 외에 해외 변수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과민 반응에 따른 지수 낙폭은 일정 수준 만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변수로는 이번 주에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현황과 월요일 사이버머니(Cyber Monday) 소비 결과가 지수 움직임에 결정할 것인데, 현재는 전년대비 11%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주 후반에는 미국 경기 회복을 가능할 수 있는 고용지표 등 주요 경기지표가 좋아 발표될 예정인데, 전반적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에 따라서 주초에 지정학적 위험으로 재차 지수 변동이 확대된다라도 미국의 소

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수가 조정될 경우 비중축소 보다는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로 지수가 하락할 때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악재의 크기보다 지수 낙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비중을 함부로 줄이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겨울 눈꽃세상” “한라산등반” 大 특가 (2011년 2월 24일까지)

“올레길”도 걷고 “오름”도 보고, “한라산”도 오르고, “관광열차”도 타고~

배타고 갈 필요 없어요~! 왕복 항공으로 더욱 저렴하고 편안하게~!

상품1 올레길+한라산 등반

광주 왕복항공 1박2일 ₩99,000~

★출발일 : 12월 12, 19, 26 // 1월 9, 16, 23, 30일 ...★매회 8명이상 조건 // 기타 날짜 요금인상.

일 자	여행일정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집결 [출발 40분전-개인보딩/신분증지참] 광주출발(오전)-제주도착 후 가이드 미팅 제주 오름테마공원-중식-올레길 체험(14코스) 호텔 도착 후 자유시간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 조식 후 - 한라산 등반-중식(도시락)-농수산물 직매장 공항으로 이동-제주 출발(오후)-광주 도착

상품2 올레길+한라산등반+관광열차 여행

광주 왕복항공 2박3일 ₩139,000~

★출발일 : 12월 13, 14, 20, 21, 27, 28 // 1월 3, 4, 10, 11일, 17일, 18일...
★매회 8명이상 조건 // 기타 날짜 요금 인상.

일 자	여행일정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집결 [출발 40분전-개인보딩/신분증지참] 제주도착 후 가이드 미팅 호텔 도착 후 자유시간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 조식 후 ★한라산 등반-중식(도시락) 호텔도착 후 자유시간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 조식 후 ●선택관광(삼국지랜드 OR 코끼리쇼) ★제주에코랜드 생태 공원 열차 체험(50분) ★조랑말체험(단거리승마체험)-중식 성읍민속마을을 초기집 관람 ★일출랜드 제주출발(오후) 광주도착

※365일 제주도 항공권 확보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일반호텔(5-6인실), 차량, 일정내관광지요금, 식사(확인요망), 여행자보험 불포함 사항 기사가이티프(1인 10,000원) ●선택관광 ●유가할증료